

강론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새롭고 권위가 있어, 사람들은 감탄하며 놀라워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말씀에 악령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 소문이 온 갈릴래아와 그 근방에까지 두루 퍼지게 됩니다.

옛날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율법학자들의 말이라면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학자들의 권위가 쇠퇴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아는 것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더러운 영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서는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러운 영은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영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주님 제발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오. 더 이상 저와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외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더러운 영이 말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자녀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러운 영이 그렇듯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멈추어 섭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특히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 헌금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에 쓰입니다. 가진 것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사회를 밝힐 것입니다.



김대열 가브리엘 신부 | 상평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1독서

신명 18,15-20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1코린 7,32-3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복음

마르 1,21-2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2면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

3면 220차 여성 푸르실로

6~7면 청년 월보

추억.하게 하소서

영화 <1987>의 추억은... 그 시절의 청춘들이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인간의 체온이라는 핵심을 과장이나 손실 없이 포착해낸다.
- 한겨레 신문, 17.12.30. -

사람의 오감을 '집중'시켜 '그 자리'에 보존해야만 소장 가능한 게 '기억'이라면, '해제'시켜 '홀어 놓아도' 언제든 내 것이고 소환 가능한 게 '추억'이다. 어떤 시간과 그 시간 속의 사람이 온 마음에 잔잔한 진동을 일으키며 현재의 나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미소 짓게 한다면 그것은 추억이다. 추억은,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피하려고 등을 완강히 세우지 않아도 물처럼, 공기처럼, 어느 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마음을 풍경으로, 목소리로, 고요하게 펼쳐주는 것이다.

- 서석화, 시인 -

전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성과 의지의 측면에만 머문다면 허울뿐인 전례가 됩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모든 놀라우신 일들의 원천은 사랑이었지 기계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느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의 따뜻함을 지닌 인간다움을 실현할 때 품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 서품 받은 사제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신앙적 지식을 깊이 체득한 신자들조차, 그들의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기억하면서도 그 사랑을 자신 안에 구현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사람을 선인과 죄인으로 판단하고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공동체의 일치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지로 끌고 가는 신앙생활은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의무감이나 도리로써 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함을 기억'(추억)하고 품을 수 있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소식

● 초등부 신입 복사학교 1,2차

마산·진주지구 신입 복사단들



초등부 신입 복사들의 교육을 위한 복사학교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1차 교육은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마산·진주지구 초등부 복사 103명이 참석하였으며, 2차 교육에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창원·거제지구 초등부 복사 103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신입 복사들은 제의와 제구의 의미, 미사 구조와 미사 전례의 의미에

신입 복사학교에 참석한 아이들과 신학생들



대하여 배웠으며, 인성교육도 받았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복사학교는 교육과 더불어 다른 본당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새 친구와의 우정을 나눈다. 또한 신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소의 꿈을 키우기도 한다. 신입 복사학교 교육은 성소국과 신학생들이 준비하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220차 여성 꾸르실로

본 당	성 명	세례명
가음동	이정자	노엘라
	유경숙	레지나
거 창	이지희	클라라
	최종숙	마리아
경화동	박인자	스테파니아
	최윤자	마리아
고 성	최부선	체칠리아
고 현	박정미	요세피나
	윤명자	소화 데레사
남 해	정봉순	크리스티나
대방동	박정란	가브리엘라
	박귀선	아네스
덕산동	이숙노	세라피나
	박국향	카리타스
명서동	추정애	헬레나
	조옥희	그라시아
문 산	김임선	에스테르
반 송	지송윤	마리안나
	김순이	카리타스
복신동	박소미	정혜 엘리사벳
사림동	조임숙	아네스
	김정심	엘리사벳
사 천	장정애	요세피나
	김행자	베로니카
사파동	이순늬	첼라인나
	이경숙	마리아
	정지영	아가타



220차 여성 꾸르실로 수료자들과 봉사자들이 배기현 주교, 주용민 신부(미디어국장)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제220차 여성 꾸르실로가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실시되어 총 60명의 신자가 수료하였다.

본당 가나다순

산호동	박정숙	테클라
삼 계	이재영	마리아
	정주엽	도미니카
신안동	하희자	가타리나
	최순옥	로사
양덕동	천은미	리오바
완월동	박영숙	데레사
용 잠	강애숙	소피아
월남동	최희천	베로니카
월 영	신연희	에스테르
	김영혜	로스앤

장승포	조영순	데레사
장 평	최정아	요안나
	나현미	캐롤린
중 동	이명희	크리스티나
	편점숙	미카엘라
중앙동	이경민	베로니카
	이진숙	클라라
창 념	김원이	마리나
칠 원	이영순	마르가리타
	정옥희	로사리아
	방순옥	마리아

태평동	김창순	가타리나
팔용동	김순영	마리아
	윤정옥	엘리사벳
하 청	김명희	젬마
	김경희	수산나
함 안	이화숙	체칠리아
	김경화	루치아
합 천	탁양지	M.막달레나
해 군	최병순	레지나
호 계	안재순	요세피나
	정다연	오티리아
회원동		

● 가톨릭 농민회 우리농 도시생활공동체 정기 총회



박창균 신부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가톨릭 농민회는 1월 15일 월영성당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도시생활공동체(회장 : 박순애 젬마) 정기 총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총회는 박창균 신부의 주례로 시작미사를 봉헌하였으며, 마산·창원·진주·거제지구 공동체 활동가 대표 및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활동가들은 미사를 통하여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가들은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더불어 2018년 활동을 함께 계획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으로 회장 박순애 젬마, 부회장 장일재 가브리엘라, 총무 김정희 아델라가 선출되었다.

● 봉곡동본당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2,000차 기념 주회



조명래 신부와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단원들

봉곡동본당(주임 : 조명래 안드레아 신부)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은 1월 4일 본당 회합실에서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조명래 신부를 비롯하여 본당 수녀 및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2,000차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상 은총의 어머니 Pr. 단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성모님과 함께해온 오랜 여정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차고 복된 Pr.이 되도록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전하였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이들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느님을 만나며, 다른 이들도 우리 자신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맞이한 해외 원조 주일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려질 위기에 놓인 하느님의 모습을 지켜 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느님의 모습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력하게 일깨워 주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 혼란, 종교 간의 대립, 인종 차별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박해나 분쟁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전과 희망을 주는 삶의 터전인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의 삶이 박해와 분쟁으로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삶으로 변하였습니

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분쟁과 박해로 발생한 난민의 수가 6,56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분마다 20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고 있지만(유엔난민기구, 2016년 통계 참조), 난민 발생 지역 주변국들에서는 난민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또한 증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버리고 환대할 수 있는 ‘만남의 문화’(Culture of Encounter)를 우리 교회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시면서, 2017년 9월 27일 “난민의 여정에 함께 합시다.”(Share the Journey)라는 주제로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선포하셨습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국제 카리타스 164개 회원국들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원조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한국 교회 신자들의 정성으로 2017년 한 해 동안, 고향을 잃어버린 나이지리아, 니제르, 남수단, 부룬디, 부탄, 미얀마, 시리아, 수단,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의 난민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도움으로 난민에게 작은 희망이 시작되었고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와 난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도 한국천주교회는 난민이 희망을 키우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난민과 만남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만남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28일 해외 원조 주일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윤희 루카 주교



우울증과 신앙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유의하게 낮고, 종교적 수단을 병용하면 우울증이 더 빨리 치료되며, 자살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신앙이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신앙 공동체가 제공하는 영적·사회적·심리적 지지, 안정감, 위로 및 희망, 왜곡된 사고의 교정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신앙이 제공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 및 목적성이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이고, 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쓰라린 상실의 경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다고 한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우울증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의례’ 또는 ‘성장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옴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무력감, 절망감, 좌절, 낙담, 악몽, 환시, 죽음, 소망 등에 시달린다. 견디다 못한 옴이 자신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인간임을 깨닫고 이를 자복하자 드디어 하느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

고 위로하시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신다. 옴은 심한 우울의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20살 무렵 전쟁 포로가 되면서부터 수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런 고통을 겪은 후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리게 된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젊은 시절의 우울증은 회개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일종의 과도기적 통과의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젊은 시절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시도하다가 수구파에게 납치되어 톨레도 수도원 지하 독방에 갇힌 채 수개월 동안 온갖 학대와 모욕을 당하고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나 요한은 이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정화시키고 신앙을 고양시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소위 ‘어두운 밤’을 통하여 완덕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

물론, 영적 체험과 관련이 있는 이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우울증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우울증이라는 시련으로 단련, 정화시켜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는지도 모를 일이다.

“삶의 향기”

내가 버린 영혼

강병순 아우구스티노·고성본당 상리공소

어느 날 밤 그는 참회하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의 골짜기에서 헤매던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찾아 주옵소서.”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은 뽕뽕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싹 껍질들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쌓여 있구나. 무슨 껍질이나?”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껍질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돈, 쾌락, 권력, 허영, 미움, 싸움, 배신, 질투, 욕망, 불안, 공포, 저주...”

모든 껍질을 벗기고 나자 조그만 영혼이 나왔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왜 이렇게 작고 못생겼습니까?”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온갖 죄악에 쌓여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으니 오죽했겠느냐?”

그는 영혼을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영혼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1월 청년 월보

- 청년 평신도 사도직 단체 소개 및
2018년도 청년부 교육, 행사일정 -

2018년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1월 청년 월보에서는 교구에 있는 “청년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본당에서의 본분을 부족함 없이 수행함에 그치지 않고, 교구와 교구의 청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선택주말

선택주말은 서로 알고 사랑하며 봉사하기 위하여 (To know, love and serve you)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이들이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가정, 사회, 교회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깊은 소속감을 갖도록 이끌어 주며 이러한 소속감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일체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 연 2회 프로그램 실시



○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

젊은이성령쇄신봉사회는 가톨릭 성령쇄신 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구장의 사목 방침에 적극 순명하고, 실천하면서 교구 젊은이들이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는 말씀을 주체성구로 삼고 교구 젊은이들의 신앙 쇄신과 복음화에 주력하며 가장 낮은 자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 연 3회 세미나 실시 ▶ 매주 화요일 기도회 진행



○ 청년성서모임



청년성서모임 에파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청년 신자들의 모임으로, 젊은이들이 성경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능동적으로 접하고 자신의 삶을 복음화 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 3회 연수, 연 2회 청소년 피정 실시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떼제미사



○ 청년로고스 성경공부모임

로고스는 ‘말씀’을 뜻하는 용어로, 청년로고스 성경공부모임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월 2~3회의 성경공부모임을 가지며, 각 피정별로 정해진 통독 범위를 읽고 묵상하여 1박 2일간 진행되는 성경 통독 피정을 준비합니다. 봉사자들은 참가하는 청년들과 함께 통독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 연 3회 피정 실시



○ 비다누에바

스페인어로 ‘VIDA’는 ‘삶’이며 ‘NUEVA’는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비다누에바’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비다누에바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눈높이 연수로서 체계적인 전례와 교리 교육 및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과 삶을 배우는 2박 3일간의 청년 사도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연 2회 연수 실시





2018년도 청년부 교육 및 행사일정

월	일	교육 및 행사명	장 소	참가비
1월	12.(금)~14.(주일)	10차 청소년 성령세미나	마산가톨릭교육관	9만 원
	25.(목)~28.(주일)	40차 탈출기 연수	산청 성심원	10만 원
2월	10.(토)	대학생 연합회 총회	미정	-
	10.(토)~11.(주일)	청년 간부 및 단체장 연수	마산가톨릭교육관	5만 원
	23.(금)	청년성서모임 재교육	교구청(1층) 19:30	-
	25.(주일)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	교구청(1층) 14:00	5천 원
3월	3.(토)~4.(주일)	청년로고스 성경통독 피정	마산가톨릭교육관	5만 원
	23.(금)~25.(주일)	5차 VIDA NUEVA 연수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0만 원
4월	7.(토)~8.(주일)	대학생 연합회 신입생 환영 모꼬지	통영&거제 예구공소	-
5월	11.(금)~13.(주일)	27차 젊은이 성령세미나	마산가톨릭교육관	9만 원
	19.(토)~20.(주일)	5차 청소년 말씀과 찬양 피정	산청 성심원	5만 원
6월	16.(토)~17.(주일)	청년로고스 성경통독 피정	마산가톨릭교육관	5만 원
7월	19.(목)~22.(주일)	41차 창세기 연수	산청 성심원	10만 원
	26.(목)~29.(주일)	42차 마르코 연수	산청 성심원	10만 원
8월	12.(주일)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	교구청(1층) 14:00	5천 원
	11.(토)~15.(수)	한국 청소년·청년 대회 (KYD)	서울 일대	15만 원
	17.(금)~19.(주일)	대학생 연합회 농활 & 하계 연수	거제 윤봉문 성지	미정
	24.(금)	청년성서모임 재교육	교구청(1층) 19:30	-
9월	8.(토)~9.(주일)	청년로고스 성경통독 피정	마산가톨릭교육관	5만 원
	14.(금)~16.(주일)	28차 젊은이 성령세미나	마산가톨릭교육관	9만 원
10월	5.(금)~7.(주일)	6차 VIDA NUEVA 연수	성산종합사회복지관	10만 원
	6.(토)~7.(주일)	대학생 연합회 추계 소풍	순천만	미정
	20.(토)~21.(주일)	청년도보순례	거제 일대	3만 원
11월	3.(토)~4.(주일)	6차 청소년 말씀과 찬양 피정	산청 성심원	5만 원
	9.(금)~11.(주일)	49차 선택주말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9만 원

● 청년부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syoung 혹은 마산교구 청년사목국 검색

예비 사돈과의 갈등

결혼 적령기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은 5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른들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윗감이 듭직하고 우리 딸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 사돈댁 어른들도 같은 교우이시고, 성실하신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려니 생각했지요. 저는 무남독녀인 우리 딸의 첫 보금자리 마련에 돈을 넉넉히 보탬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 바깥 사돈께서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신혼살림을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참에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신혼집 마련은 아예 저희 쪽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사돈께서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을 나약하게 만든다며 일언지하에 저의 제안을 묵살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하도록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에서 그만 저도 '초라한 곳에서 우리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박해버렸습니다. 일부러 아이들을 고생시키려는 놀부 심보로만 보였습니다. 결국 상견례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이 결혼 승낙 못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파혼까지 생각하고 한 말은 아니었고 단지 사돈댁에서 우리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아이들 살림에 일일이 간섭하는 기가 드센 장모가 있는 집과 사돈 맺고 싶지 않아 한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드세다니요. 딸 신혼집 마련해주는 엄마가 왜 드세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우리 딸은 울며불며 '엄마가 한번만 잘못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사돈댁에도 득이 되는 제안이니 결국 제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딸과 남편은 제가 뜻을 접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이고이 키운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많이 힘드시군요. 그 혼한 예단이나 혼수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경제지원을 하겠단 제안을 거

절당해서 더더욱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따님의 신혼살림이 예쁘게 시작되는 걸 보고 싶은 친정엄마의 로망이 무너지셨군요. 젊은이들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서 신혼생활을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친정부모의 마음이지요.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있으면 한결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제안했었는데 무참하게 거절당하고, 더구나 기센 장모 취급까지 받게 되어 마음을 돌리기 싫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는 통상 신랑 쪽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신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모습에서 혹시 당황하지는 않았을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집 마련에서 주도권을 요구하는 사돈의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한다는 자신의 인생관을 사돈이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을까요? 지금 신부 측에서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요즘 삼포시대라는 말이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요. 자녀가 일을 찾고 배우자감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 맞지요? 딸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것 맞지요?

어머니가 멋지게 한번 저 주세요.

딸은 어머니를 통하여 삶의 중요한 시기에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를 배울 거예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딸을 적절하게 도울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사돈에게 통 크게 사과하고 양보하시면 아주 멋진 친정엄마가 될 것입니다.

‘한마음의 집’에 다녀온 날

김현주 스텔라 • 수필가

‘한마음의 집’에 다녀왔다. 봉사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그저 마음만 앞서서 반나절을 허둥대다가 돌아왔다.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지냈을 때 주말마다 나들이처럼 서문시장을 다녔다. 집에서 두어 정류장 거리인데 무료급식소를 지나쳐 가야 했었다. 급식소 앞마당에는 11시가 되기도 전에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서 찬거리로 가득 채운 장바구니를 끌고 그분들 옆을 지날 때는 죄송스러워서 바닥에만 시선을 주고 얼른 지나치곤 했었다. 그렇게 지나가기만 했던 급식소에 난생처음 들어서서 급식소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을 챙기다 허리를 펴보니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밥 좀 마이 주이소.”

기운 없이 간절히 말하는 그 소리에 목이 메어와서 식판만 보고 밥을 챙겨드렸다. 급식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팔죽이 생각났다. 40여 년 전, 파란 대문인 우리집 뒤편 세차장에서는 양철통 안에 폐목으로 불을 피워 얼어붙은 손을 녹여가며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았다. 얼음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지면 엄마는 팔죽을 쑀었다. 찹쌀로 새알도 빚어서 넣고 마당 한쪽에 묻어둔 장독에서 동치미도 내고, 김장김치도 내어서 안방 뜨끈한 아랫목에 차려두고는 세차장 아주머니들을 불러 모았다. 시장 다녀온 장바구니에서 팔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친정에서 보냈다고 얘기하며 자꾸 죽을 덜어 주셨다. 그 시절, 우리 집 아랫목 코

스는 꽃무늬 빨간 담요 밑으로 뽁뽁 언 발을 넣고 녹인 후 길게 찢은 김치를 올린 팔죽이나 호박죽 두세 그릇 잡수시고, 후식으로 설탕 듬뿍 넣은 커피였다. 동네 요구르트 아주머니, 방문판매 화장품 아주머니, 앞집 문간방에 세 든 할머니… 대문은 항상 열려 있고 객은 많고 아랫목 군용 담요 자락 안에는 죽이나 밥이 항상 두어 그릇 들어 있었다. 철없던 마음에 꽃무늬 담요에 냄새가 배었다고 투정을 하며, 팔죽과 호박죽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 집에서 그런 겨울을 다섯 해쯤 보내고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들어서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짐을 나르며, 새벽길 늘 따끈한 커피를 마셨다던 청소부 아저씨는 뒷정리를 맡아 주었고 세차장 아주머니들은 다시 일어서라고 세제를 사서 트럭에 실어 주었다. 파란 대문 집 사랑방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했었다. 비록 우리는 집을 잃었지만 동네 인심은 가득 싣고 떠났다.

그 겨울날들의 추억 때문인지 팔죽이나 호박죽을 떠올리면 따뜻해지면서도 눈물이 난다. 갈라터진 손등에 바세린을 바르고 죽을 받아들던 아주머니들의 모습과 남은 죽을 싸 들고 건너가던 앞집 할머니의 굵은 등이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

찬바람이 길어지는 겨울날, 나는 누군가에게 온기 가득한 손길을 내민 적이 있었던가. 한순간이라도 차가운 바람막이가 되어 준 적이 있었던가.

오늘, 하루 또 반성하며 기도한다. ‘주님. 낮은 데로 임하소서.’

기억할 사제

2. 2.(금) : 故 차기병 신부 30주기

故 김민수 유스티노 신부 5주기 기일 미사

일 시 : 2. 7.(수)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요역
문 의 : 양덕동성당 사무실
055)292-6561, 010-2852-0988
※ 미사 후 점심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 바랍니다.

향심기도 피정(하느님과 친밀) 3박 4일

일 시 : 2. 20.(화) 15:00~23.(금) 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향심기도 피정 경험이 있으신 분
참배 : 24만 원
준비물 : 수건 및 세면도구, 개인컵
문 의 : 교육관 사무실 055)221-1891

명례 복음화 학교 개강

복음화 학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 시 : 3. 5.(월) 미사 - 10:30
장 소 : 명례성지
문 의 : 성지 사무실 055)391-1205
담당 사제 010-3166-0773

WWME 50주년 기념 세계대회 참가 안내

행사일정 : 6. 22.(금)~24.(주일)
장 소 : 미국 시카고
주요일정 : 1안 - 6. 17.(주일)~29.(금)
12박 13일(미동부, 시카고, 미서부)
2안 - 6. 17.(주일)~26.(화)
9박 10일(미동부, 시카고)
문 의 : 김주호(요아킴), 조정선(안나)
010-7744-1551, 010-2736-3496
이메일 - chojs4418@korea.kr
홈페이지 - "다음 포털"에서 "마산ME"로 검색
※ 항공기 예약 등으로 조속한 접수가 필요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전국 총대리 회의 ◆

일 시 : 1. 31.(수)~2. 1.(목) 1박 2일
장 소 : CBCK

교 구

■ 소공동체 연구위원 모임

일 시 : 2. 1.(목) 11: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신앙대학 개강

일 시 : 2. 3.(토)~4.(주일)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사목국 055)249-7021~3

■ 2018학년도 예비신학생·여성소 모집

기 간 : 2월 동안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교구 말씀봉사자 피정

일 시 : 2. 2.(금)~3.(토) 1박 2일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성경부 055)249-7025~6

■ 가정사목분과 위원 연수

일 시 : 2. 4.(주일) 13:30
장 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문 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청년 간부 및 단체장 연수(1박 2일)

일 시 : 2. 10.(토) 15:30~11.(주일) 15:3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대 상 :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본당 청년
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대학 회
장단
신 청 : 2. 4.(주일)까지 접수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 시 : 수요일 14:00~17:30, 19:30~21:00
장 소 : 중동성당/ 대 상 : 신자, 일반인
내 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 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
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 의 : 중동본당 사무실 055)298-4657

기관·단체

■ 교구 군중후원회 총회

일 시 : 2. 3.(토) 15: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군중후원회 055)249-7113

■ 교구 레지아 평의회

일 시 : 2. 4.(주일) 14:00
장 소 : 교구청
문 의 : 레지아 055)249-7115

■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 시 : 2. 4.(주일) 15:00
장 소 : 남성동성당
문 의 : 농아선교회 011-9207-8856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
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이모임
은 자조모임으로 일체의 회비는 없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9:00
문 의 : 010-9992-3443

■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 정 : 매월 첫째 주(토)
장 소 : (마산)월영성당 10:00
(창원)사파동성당 10:00



라파엘여행사

- ◆ 3/1 이스라엘 9일 (359만원)
 - ◆ 3/5 이태리, 이스라엘 12일 (439만원-KE) (399만원-AZ)
 - ◆ 3/5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 ◆ 3/7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279만원)
-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마 산

예 경 요 양 병 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 경 병 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는
통 영 예 일 안 과

◆ 백내장 클리닉 ◆ 안성형 및 사시 클리닉
통영시 중앙로 240 통영메디칼 빌딩 2층 외래진료/
6층 수술센터 www.yeileyes.co.kr
원장 : 강태중 프란치스코
055)644-5419, 646-7968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좋은벗 상담교육센터

개인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교육/ 심리검사/ 청소년상담/
학습클리닉/ 상담전문가 양성

소장 김홍숙 세레나
www.joeunbut.net
055)266-7942
가톨릭마산 매월 마지막 주 '가정상담' 연재 중



(진해)중앙동성당 10:00
(통영)태평동성당 10:30
(거제)고현성당 10:00
문 의 :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 산 : 첫째 주(화) 10:30 교구청
창 원 : 첫째 주(목) 20:10 사파동성당
첫째 주(금) 10:30 대방동성당
진 해 : 첫째 주(월) 10:00 해군성당
진 주 : 첫째 주(월) 10:00 하대동
문 의 :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 함안 안나의 집(노인 장기요양시설) 안내

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1~4등급자
노인 중 시설급여 대상자(단, 3~4등급
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판정받은 사람)
주 소 :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944번지
대산성당 내
문 의 : 055)582-0252, 010-2674-6174

■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노인 장기요양시설) 안내

대 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1~4등급자 노인
중 시설 급여 대상자(단, 3~4등급자는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판정받은 사람)
주 소 :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 의 : 나자렛예수수녀회 055)532-7811
010-8232-7811

■ 교구 내 병원 미사 안내

마 산 : 삼성병원 매주(금) 18:00
본관 2층 1회의실(접수·수납 창구 맞은편)

창 원 : 파티마병원 매주(수) 16:00
매(주일) 09:30 7층 성당/ 창원병
원 매주(수) 18:00 3층 강당
경상대병원 매주(토) 15:00
천주교 원목실
진 주 : 경상대병원 매주(토) 16:00 지하성당

기 타

■ 로사리오 기숙사생 모집

대 상 : 여대생
위 치 : 서울 성북구 성북로 31길5-16
문 의 : 02)741-3071, 010-9333-4532

■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 간 : 3월~12월(2월 예비학교 무료)
혜 택 : 교육·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
급, 취업지원(최근5년평균취업률98.4%)
대 상 : 만 15~30세 남자/ 문 의 : 02)828-3600

■ 신·구약성경통독 피정(8박 9일)

일 시 : 3. 3.(토) 15:00~11.(주일)
장 소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회 비 : 48만 원/ 문 의 : 010-3340-0201

■ 2018학년도 제3기 중독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대 상 : 알코올, 도박 등 다양한 중독의
예방 및 상담에 관심 있는 분

교 육 : 3. 10.~11. 24. 매월 2·4주(토)
10:00~17:00
수강료 : 일반과정 35만 원(총 7회)
자격증과정 90만 원(총 18회)
자격증 : 중독전문가 2급(No. 2014-4368)
접 수 : 2. 1.(목)~28.(수)
문 의 : 051)510-0915~3/ edu.cup.ac.kr

■ 루르드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
세계 병자의 날 치유 피정

일 시 : 2. 11.(주일) 13:00~17:30
장 소 :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집)
강 사 : 부산교구 표중관(베드로) 신부
문 의 : 대구성령체신봉사회 054)954-0951

■ “일본성지순례”

장 소 : 가고시마, 나가사키 4박 5일
주 관 : 일본 가고시마교구
비 용 : 63만 원/ 문 의 : 010-3005-9028

■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 의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는 관광 및
성지 안내와 함께 차량, 호텔, 팬션
예약이 가능합니다.
문 의 : 064)758-6476, 010-4566-6476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1. 29.(월) 19:00	월남동성당	성시간	이우진 신부(요한)	이우진 신부(요한)	010-5247-9900
창원지구	1. 29.(월) 19:00	반 송 성 당	기도의 복을 누리는 사람	엄정화(루도비카, 서울대교구)	이영민 신부(베드로, 삼위일체 수도회)	010-9969-5340
진주지구	1. 29.(월) 19:30	옥봉동성당	하느님의 섭리	임성진 신부(요한)	임성진 신부(요한)	010-9677-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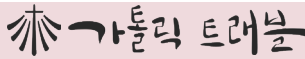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 4.(주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korvocation@columban.or.kr
스승 예수제자수녀회	2. 4.(주일) 10:00	부산분원	010-6271-4110	-

평과 밥상 · 사람과 세상 · 생태계를 살리는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우리농 직매장**

친환경 농산물 ·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산교구
1호 우리농 직매장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할인의 혜택을 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토 10:00~20:00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12
(남양동 개나리 4차 아파트 앞 상가)
전화 : 055)266-7010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포함 일정
429만 원(4월 2일 출발, 인솔자 동행)
가톨릭 트래블 www.catravel.co.kr
안지원 스테파노 070-4086-0207

◆ 밝은세상의 시작은 안경이야기에서...

안 경 이 야 기 마산 합성점

하드 RGP 콘택트, 누진 다초점 전문점
마산회원구 3·15대로 747-1 (합성동)
마산 시외버스 맞은편
이기용 로마노, 이태란 요안나
055)295-0888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할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몰입한다. 믿음의 중심인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에 등장하는 즈루빠벨 성전이다. 당시 유대 총독이 즈루빠벨(Zerubbabel)이었기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으로(마태 1,12) 바빌론에서 태어난 2세였다. 즈루빠벨 뜻은 바빌론 출신이란 의미다. 이스라엘 이름은 세스바차르였다(에즈 1,8). 유대인 본국 귀환이 시작될 때 키루스 왕은 그를 총독으로 임명했다. 5만의 군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였다. 1차 바빌론 귀환이다(BC 537년). 이렇게 해서 즈루빠벨은 이스라엘 행정을 책임진 관료가 되었다. 그와 함께 대사제 예수아는 바빌론이 약탈해간 성전 기물을 되찾아왔다. 물론 키루스 왕의 호의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즈 3,8). BC 537년 5월경, 즈루빠벨과 대사제 예수아는 성전 기공식을 한다. BC 587년 바빌론이 파괴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장소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규모는 초라했다. 옛 성전의 웅장함을 봤던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에즈 3,12). 그러나 백성 전체는 환호하였다. 이후 사마리아인과 불화 사건에 휩싸인다. 그들의 성전 건축 동참을 원로들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교도

즈루빠벨 성전 1



즈루빠벨 총독
이미지 출처 - 위키미디어

와 섞여 살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부정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참여시키겠냐는 것이었다. 사마리아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건축을 반역행위로 몰았다(에즈 4.16).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고발한 것이다. 이후 성전 공사는 16년간 중단된다. 즈루빠벨은 본국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예언자 하카이와 즈카르야는 민중을 독려하며 기다리자고 외쳤다. 마침내 다리우스 왕 2년 공사가 재개된다(BC 520년). 임금은 국고지원을 명했고 조공 일부가 건축비로 들어오게 된다(에즈 6.8).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즈루빠벨 총독이 있었다.

마침내 기원전 516년 성전은 완공되고(에즈 6,15) 이듬해 봉헌식을 가졌다. 역사에서 말하는 제2성전이며 즈루빠벨 성전이다. 훗날 헤롯 대왕은 화려하게 증축했다. 46년 걸렸다. 제3성전이라 불리는 헤롯 성전이다. 하지만 70년 독립전쟁으로 무참히 파괴되었고, 통곡의 벽이라 부르는 서쪽 벽만 남아 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기원전 967년 짓기 시작해 7년 뒤 완성되었다. 길이 31m, 폭 10m, 높이 15m 당시 건축 기술로는 획기적인 건물이었다. 세 성전 모두 예루살렘 북동쪽 같은 장소에 세워졌다.

설 명절맞이 “다정한 이웃되기”

우리는 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끼리 믿고 따뜻한 정을 나누도록 이어줍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랑의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행복을 전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 5.(월)까지
- 후원대상 : 마산합포구·회원구 장애인 세대 130가구
- 후원방법 : 현금후원 경남은행 513-07-0183548
농협은행 859-01-147184, 예금주 마산장애인복지관
물품후원 통조림(참치, 고등어, 콩치, 연어, 장조림 등), 조미김
- 문의 : 마산장애인복지관 지역연계지원팀
055)247-5194~6



2018 행복한 출발 신학기 지원모금

3월이 되면 여기저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 손잡고 다니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토동학교로, 낄레는 마음으로 언니, 누나가 되어보는 중학교로, 이제 당당히 청소년의 걸음을 걷는 고등학교로.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어린이에게 행여두지 못해 마음 아픈 엄마.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려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친구.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할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이 되어주세요.
우리들의 후배에게 2018년 행복한 신학기 출발을 지원합니다.

- 기간 : 2. 22.(목)까지
- 구좌금액 : 1구좌 2,180원/ 2구좌 4,360원/ 3구좌 6,540원/
4구좌 8,720원/ 5구좌 10,900원/ 기타 자유 금액
- 지원내역 : 학용품, 교재비, 가방, 교복 등 신학기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경남은행 580-07-0011610, 성산복지관
※ 입금자명 뒤에 신학기
- 문의 :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6~7



마음의 작은 함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